

#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林連學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發行所  
社團 韓國生藥協會  
法人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 (大山빌딩 3층)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 지면안내

- ◎ 탐방/감초시험재배현장... 3면
- ◎ 긴급점검/울약초농사... 3면
- ◎ 한약재 규격화제도 개선방안 전문... 4, 5면

# 제외수급조제품목서

경지모 패모



경북 봉화고냉지 약초시험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닥풀.

## 농가충격 최소화 방안으로 품목선정 복지부 개방안 사실상 검토완료 단계

지모, 패모, 길경, 배모, 보건복지부 3개 약재가 수급조제품목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제8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에서 행정명령규제일부를 적용대상 선정과 관련해, 현재 28개 수급조제품목서 중 3개 품목을 금지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안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생약재배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의 비교적 증감, 지모, 패모, 길경의 개방안이 사실상 검토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충격은 국내 수요량이 비교적 많고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약한 장출, 백출, 지황 등 3개 약재가 개방대상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생약재배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의 비교적 증감, 지모, 패모, 길경의 개방안이 사실상 검토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배정관련단체가 수입업자 결정

수급조제품목서 한약재에 대한 수입업자는 관련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관련 제도개혁위원회는 한

## 약초보전연합회 지정

국산약초보전연합회(회장 이성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한약규격화정책과 관련해 원형유지, 품질향상, 단일품목 통일, 한성분물의약품과 식품으로 구분한 데 따른 기준과 방법설정의 모호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진정서 및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초보전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구기자, 사수유 등을 그랑 달과 먹으면 식 품질이 되고 한약처방 놓으면 의약품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이 단순절단 포장한 약재를 의료가 아닌 한방병원에 진맥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침에 대해 "농민이 아버지와 한의사가 아들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배한 한약재를 한의사인 아들에게 무상으로라도 공급해줄 수 없다는 모순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규격화 품목 확대 시행 계획 전에 대해서는 "현시행중인 36개 품목이 미정착된 상태에서 추가 확대 시행은 무모한 행적이며 생산자의 판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규격화 품목 확대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존연합회는 또 최근 국내 제약회사들이 수입 농축액을 들여와 사용하는 등 국산약초 수입만으로는 부족해 수입만으로는 차고에 누적되어서 어가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 규격화 품목 확대 시행을 금지하고 국산 약재 미출을 규격화 품목 사용하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규격화 대상품목 확대

## 중전의 36종에서 5백 14종으로

규격화 대상 한약재가 중전의 36종에서 5백 14종의 품목으로 확대된다. 모든 한약재로 확대된다. 또 산출물과 중구속 한 유량 등을 살펴 소비자들에게 한결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품질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0월 말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2월부 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한 약재를 현재의 통관검

사에서 검사 후 통관방식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검사능률 향상을 위해 의약품수출입협회와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용안유, 공사인, 반하를 위조변조 우려가 있는 한약재 ▲부자, 천궁, 단풍, 등용근, 오담, 용우파가 있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 ▲개별가공이나 혼합을 통해 약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른바 수지, 법제를 나눌 수 있도록 유물 구조가 개선된다.

시제회사를 거친 규격화 품목이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필요치 않은 규격화 가능한 품목은 재배농민, 수입업소, 판매업소들이 자가규격 표시만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소와 제조업소는 판매할 거치지 않고도 약과 한약 방, 한방병원에 한약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유물 구조가 개선된다.

#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행사내용 및 일정

일정	내용
11월 28일 11:00~14:00	개장식 행사 출품한약재 품평회 입상자 발표 및 시상식
11월 29일~12월 4일 10:00~17:00	수입, 국산 약재 비교전시회 각도별 주요생산품목 전시

일시 : 1997년 11월 28일~12월 4일(7일간)  
장소 : 용산역 광장  
주최 :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후원 : 농림부, 보건복지부(예정), 한국방송공사(예정)